지역 소식통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임환규)는 4일 정읍시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서 '2020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워지는 날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대상자의 부실한 식생활을 보충하고, 타인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정서지원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시장과 부인인 오명숙 여사를 비롯해 새마을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국산 고춧가루와 각종 재료를 준비해 물을 끓이고 식히는 등 준비하는 작업부터 포장까지 정성을 들여 고추장을 담궜다.

이날 완성된 총 2,000kg의 고추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약 1,800여 세대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2~2023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고창군이 '한국판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굵직한 국책사업을 찾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2022년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2022년 확보 대상 사업으로 85건(총사업비 4,109억원 규모)을 찾아냈고, 2023년 대응사업으로 34건(총사업비 3조180억원 규모)을 발굴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고창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워크숍' 등을 통해 '녹색도시 경관조성 지중화사업(120억원)' 등 20건, 974억원 규모의 K-뉴딜사업을 신규로 찾아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천사 히어로즈'서 놀자

정읍시, 복합 놀이시설 개장… 시간당 이용객 100명 제한
스크린 야구 · 사격 · 트램펄린 등 17종 39개 시설 갖춰져

정읍시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 시설이 지난 3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천사 히어로즈'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총사업비 49억2,000만원을 투입, 건축면적 2,280㎡(약 690평) 규모로 2018년 12월에 착공해 지난 5월에 준공됐다.

기존의 놀이터와 달리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과 함께 사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는 실내형 복합놀이를 테마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타워클라이밍과 스크린 야구, 사격, 트램펄린 등 17종 39개의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놀이 활동기와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공간도 만들어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입장객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고, 시간당 이용객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청소년은 1시간에 9,000원, 성인은 8,000원이며,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이 추가된다.

정읍시민의 경우 2,000원이 감면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천사 히어로즈는 국내 유일의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어린이·청소년 위주의 관광시설"이라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과 힐링 토탈관광 기반을 구축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 시설이 지난 3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이 박물관을 생생하게 느끼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VR(가상현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창의 마한' 특별전… VR온라인 전시

고인돌박물관, 유물 50여점 한 자리… 29일까지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실제 박물관을 생생하게 느끼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VR(가상현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마한을 보다'가 온라인 VR전시로 선보인다. 전시는 고창군에서 발굴 조사된 마한 고분유적 출토 유물 50여점을 한 자리에 모아 역사 기록 속의 모로비티국(牟盧卑離國)과 만동유적, 봉덕리 고분군 등의 대표유적을 선보인다.

1부 '마한의 등장'에선 철기문화의 영향 속에서 발전한 고창의 만동유적, 선동유적, 봉덕유적, 왕촌리유적을 소개한다. 2부 '마한의 성장'은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 등 최상위급 위세품을 통해 당시 봉덕리 고분군 축조세력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봉덕리 1호분 발굴 당시의 생생한 영상 등이 제공되면서 발굴현장에 있는 듯한 전율과 감동을 전해준다. 3부 백제로의 편입에선 본격적인 백제문화가 나타나는 오호리 유적, 동교고분을 소개한다.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온라인 VR 전시는 고창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특별전은 11월 29일까지 고인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매주 월요일 휴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공모 선정

음식 · 소리 · 치유 슬로건
국비 73억 포함 122억 투입

고창군의 '고창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모양성마을에 이은 2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쾌거다.

고창 옛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고창전통시장 주변 구도심 지역으로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으로 추진된다.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와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사업은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도심'을 슬로건으로, 건강먹거리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73억원과 지방비 49억원을 포함해 모두 1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고창읍성과 동리 신재효 선생의 동리정사 등 판소리 자원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음식치유존=음식치유장, 청년상생관, 중심테마가 조성 ▲소리치유존=소리치유관, 모양이야기길, 주차장 경관개선 ▲함께치유존=어울림센터 신축, 보행친화공간 조성,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준비해 왔다. 또 옛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동아리활동, 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을 키워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민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울력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옛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명동 각시다리 축제 개최

정읍시가 오는 7일 각시다리 설화를 테마로 하는 '제2회 장명동 각시다리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각시다리 축제'는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장명동의 옛 지명인 씨교(氏橋, 각시다리)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 간 상호 소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비대면 버스킹 공연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포토존 설치 운영과 홍보 제품 나눔 행사로 진행된다. 또,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장명동 옛 사진 자료를 수집 정리해 전시회도 운영한다.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장명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 사은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뀐 환경과 일상에 적응하는 주민들에게는 새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각시다리 설화가 정읍시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예산확보 전력투구

권익현 군수 여야 의원 잇단 만남… 다각적 지원 · 협력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4~5일 2일간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2021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단계 증액 및 국비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돼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윤준병·이용호·이상직·정운천·김한정 국회의원 등 예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 혁명의 전당 건립,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확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수흥·김성주·도종환·유동수 국회의원 등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 한정애 국회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해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부안상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